

순천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로 그린바이오 선도

산·관·학·연 전문가 협의체 14명 구성, 제1차 자문회의 바이오산업 5대 전략산업 선정...2024년 공모사업에 응모

순천시와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순천이 전남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 핵심 전진기지로 나아가기 위하여 총력을 기하고 있다. 시는 최근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 전남 바이오 연구기관, 순천대, 산업체와 함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이 농수산업 분야에

응용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 장비와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공모사업 자문과 협력을 위해 산·관·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는 바이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승주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2024년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또한 승주읍 일원을 바이오산업 혁신 거점

으로 삼고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며,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대학30과 연계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확대·조정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는 지난 13일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과 더불어 그린스마트팜과 연계한 육성 전략으로 시와 함께 지역 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캐릭터인 '다섬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 6천 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섬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모티콘은 지난해 개발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EI(Event Identity) 디자인을 활용, 소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힐링여수야'를 검색해 친구추가 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다운로드 이후 30일이다. 기존 구독자는 채널을 차단하고 오후 2시 이후 다시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보성군, '보성물'과 함께하는 블랙프라이데이

24일까지 '보성물'전 제품 20% 할인, 톨렛 이벤트 등 진행

보성군은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물'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특가로 알뜰 쇼핑족들을 만족시키는 블랙프라이데이 열풍이 보성군 농산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보성군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11. 20. ~ 11. 24.)을 맞이해 보성군을 대표하는 우수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파격적인 가격으로 수량 소진 시까지 선보인다. 판매 품목은 축산, 과수, 쌀 등이다. 특히 제철을 맞이한 보성 키위와 햅쌀 판매가 많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소 2천 원부터 최대 10만 원 당점이 가능한 톨렛 이벤트, 행사 기간 동안 매일 500원을 지급하는 출석 이벤트 등의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회원 유입과 기존회원 구매 유도를 통한 보성물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11월은 여러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달로 소비 심리가 상승하는 시기이다."라며 "이 기간 소비자가 보성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벤트와 홍보를 진행해 보성물 매출 상승을 이끌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물'은 차, 쌀, 잡곡, 키위, 토마토, 꾀막, 발효·가공식품 등 160여 업체의 1,100여 가지 상품이 등록된 보성군 농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이다. 2022년 매출액 42억 원, 2023년 10월 말 기준 39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지역 농가와 업체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보성=김명순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생육상태 전문가와 현장점검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전문가 의견 수렴



정인화 광양시장이 17일 11월 중 제2차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해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광양읍 유당공원 이팝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거수로 1971년 9월 13일 천연기념물 제235호로 지정됐으며,

한국에서 자라는 이팝나무 중 균형 잡힌 수세와 수형이 첫째로 꼽힌다. 2007년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광양읍수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유당공원에는 이팝나무, 푸조나무,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 26주의 노거수가 있고 인동숲 공원에는 40주의 노거수가 있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아늑한 쉼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날 정인화 시장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도급사와 의견을 나누고 이팝나무 생육환경 모니터링 결과, 노거수 주변 물이 많이 뿌리가 물에 잠겨있는 시급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차수벽 설치와 토양 개량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 문화재청에 생육환경 개선 허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시민쉼터인 유당공원 및 인동숲에 조성돼 있는 '광양읍수와 이팝나무'의 문화유산적 보존 및 역사적 가치를 엄중히 여겨 상시 모니터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고흥군, 섬마을 9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고흥군은 안전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9개 섬 마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섬마을 특성상 접근성이 좋지 않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고령층이 많은 마을에 심정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 시설이 없는 9개 섬(도화면-죽도, 남양면-우도, 도양읍-상·하화도, 봉래면-쑥섬·수락도, 과역면-진지도, 포두면-침도, 영남면-대옥테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까지 병행해 실시했다. 마을 주민들은 "병의원이 멀리 있어 아픈데 불안전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로 안심이다. 매우 감사하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공영민 군수는 "도서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감으로써 주민뿐만 아니라 탐방객을 위한 안전한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